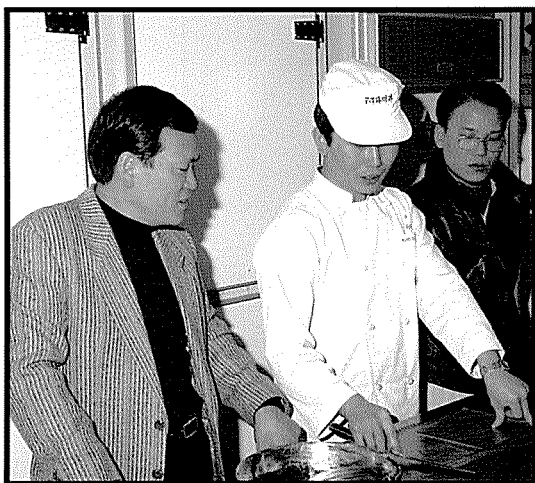


박찬희, 함상운, 우원석씨에게 들어본 제과업계의 선후배

“선배들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후배의 할일이죠”

제과업계의 선후배 얘기를 한번쯤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지난해 11월부터다.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만한 서정웅, 박찬희, 장복영씨를 우연찮게 제과학교에서 만나게 됐다. 세분에서 어디를 다녀오시냐고 물으니 후배인 우원석씨가 오늘 제과점을 오픈해서 갔다온다고 했다. 그럴 수 있다고 지나칠 수 있는 얘기였는데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다. 서로 한가한 처지도 아닌데 아무리 아끼는 후배가 제과점을 오픈한다고 시간을 낼 수 있을까. 분명 쉬운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업계의 아름다운 얘기를 하기로 했다. 크리스탈 박찬희 상무, 구라파 제과 함상운 공장장, 삐에스몽테 대표인 우원석씨를 모시고 그들이 생각하는 선후배 관계에 대해서 들어봤다.



“당시 박상무님에게 배웠던 케이크 데커레이션 등은 아직도 그대로 후배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함상운씨의 말에 우원석씨도 한마디 거들고

함상운씨가 공장장으로 있는 구라파 제과에서 만나기로 했다. 박찬희 상무가 들어선 것은 약속시간인 4시가 조금 넘어서면서.

“오늘 김봉수가 제과점을 오픈한다는데 같건가.”

“상무님은요. 이따가 함께 가시죠.”

처음 만난 둘의 대화가 정답다. 서로의 안부보다는 다 큰 후배의 근황에 대해서 먼

저 얘기를 시작하는 따뜻한 선배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니 말이다.

우원석씨가 약속시간을 무려 30분이나 어겼다. 공장 막내가 말이다. 모두 한마디씩했다.

“이거 사장이 되더니 막내가 제일 늦게 오는 구만.” 박상무의 농담에 우원석씨는 머리를 굴적굴적.

박상무가 현재 마흔 여섯이니 함상운씨 보다는 여덟 살, 우원석씨 보다는 열다섯살이나 많은데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오히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절친한 친구들처럼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솔직히 선후배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쑥스럽습니다. 저보다 윗선배도 많은데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주체넘는 것 같아서요. 아무튼 저

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분은 돌아가신 김충복씨였습니다.” 박 상무의 첫마디다. 그런데 사실 고 김충복씨와 박상무와의 인연은 그에게 준 영향 만큼길지는

않다. 박 상무가 김충복씨를 처음 만난 것은 그가 뉴욕제과에 근무할 때 6개월 정도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유명한 분이
라 그때는 많은 얘기를 나눠보지는 못했습니
다. 기술을 배우려는 후배들이 그분 주변에 워
낙 많았거든요. 그후 제가 명보제과를 거쳐
85년 김충복 제과점 본점으로 자리를 옮기면
서 그제서야 가까워서 선배님을 지켜볼 수 있
었죠.”

짧은 시간 만났지만 선배에게 배운것은 그 이상

박상무가 김충복씨를 본격적으로 만난 때는
이미 그의 기술이 완숙해지면서 업계에서 명
성을 얻고 있을 때였는데도 가장 존경하는 선
배로 김충복씨를 꼽는다는 것이 의문이다.

“꼭 함께 있어야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저
는 처음 기술을 배울 때 명보제과에 근무했는
데 그때 상무님을 만났고 그후로는 오히려 가
까워서 지낼 수 있

는 기회가
없었습
니다.
그래
도
케이
데커레이

선 등 현재 제 기술의 대부분은 박 상무님께
배운 것입니다.” 함상운 공장장의 보충 설명이
다.

우원석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김충복 제과
점 뉴코아점에서 함상운씨와 잠깐 일한 경험
밖에는 없다.

“아직도 기억에 나는 선배님이 있습니다. 변
덕수라는 분이었는데 김충복 선배님의 얘기를
하면서 너도 기회가 있으면 일본에 가서 공부
하라는 말씀을 항상 해줬습니다. 처음 제과기
술을 배울 때였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일본
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본 현장의 경
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충고가 도움
이 됐습니다.” 우원석씨의 말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새삼 느끼는 순간이다. 그런 선배는 기술
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생활 습관마저 바꿔 놓
는다.

“저는 후배들에게 ‘내가 사장이다’는 생각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정성이
들어가고 재료도 아끼게 되죠. 믹서기에 남은
반죽도 긁어서 사용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지라
고 당부합니다.” 함상운씨의 말이다.

그 자신이 선배들에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
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말하면 잔소리가
많은 선배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그래
도 후배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결코 틀린 일이 아니기 때
문이다. 오히려 반
드시 누군가
는 해야

할 말이고 그가 선배에게 배웠던 생활자세를
어느 후배에게는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
이다.

항상 우리사회의 어른들이 하는 말이었다.
요즘 아이들은 안돼. 버릇도 없고 성의도 부족
하고 자기만 알고. 시간이 흐르면 시대의 가치
관도 변하는데 자신이 살았던 때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다. 우리 업계
도 요즘은 선후배 풍토가 많이 변했다는 말을
많이 한다.

“옛날에는 빵기술 배우는 사람은 많은데 자
리는 부족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일손
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좋
은 보수를 주는 곳으로 자주 자리도 옮기게 되
고 따라서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었죠. 이런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또
선배, 후배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해진 것도 원
인이 될 수 있겠죠”

박상무의
말이다.



진정한 선후배 관계란
자신이 배웠던
‘역사’를 후배에게
남겨 주는 것이
아닐까



서로의 안부보다는
또다른 후배들의 근황을
먼저 묻는 선배의
마음쓰임새가 고맙다.

대가를 요구할때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이는 것이 중요

그러나 이런 것보다 그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것은 가끔씩 들리는 기술자들의 '월급' 문제. 자신의 자질이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아야 함에도 몇몇 기술인들이 그 이상의 대우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걱정이 앞선다. 사회엔 분명히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깨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 후배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고 계속 뒤를 잇게 될 미래의 기술인에게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

“똑똑하고 한가지를 알려주면 그 이상을 알아듣는 후배들도 많습다. 그런 기술인을 만날 때면 기분이 좋죠. 한편으로는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선배가 우선은 필요하겠죠. 좋은 선배 밑에서 훌륭한 후배도 자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의미가 숨어 있는 말이다.

“나이를 먹는다고 선배가 되는 것은 아니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을 우선은 갖춰야죠. 박 상무님은 다른 제과점을 가시면 제품을 유심히 살핍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죠. 누구보다도 기술이 뛰어난 분이 무엇을 저렇게 보시나하고 말이죠.” 우원석씨의 말이다.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만든 기술인 나름대로의 장점이 제품에 숨어 있다는 설명이었다. 한사람 한사람 존중해 주는 선배의 마음을 읽는 순간이었다.

“김충복 선배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 분

의 기술을 남기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배님이 만든 공예제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 후배로서 자책감이 앞섭니다. 후배 중에서 그분의 기술을 전수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 만든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는 선배님을 알지 못하는 후배들에게 미안합니다.” 박상무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제 후배들에게는 김충복 선배의 작품을 단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줘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안타깝다. 이런 전달도 언젠가 2,3세대 후배들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후배들도 이제부터 우리 제과업계 원로 기술인들의 제품을 정리해 책으로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다른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선배들의 제품을 한번쯤 정리하는 것이 우리 과업계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함상운씨의 말이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개인 개인의 주머니를 털어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과협회 등의 후원이 있어야겠죠.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과업계의 백여년 역사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도 이제는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란 위감을 느낍니다.” 우원석씨의 동감어린 말이다.

선배들이 남겼던 기술 이제 후배위해 우리들이 정리해야

자신들이 배웠던 기술을 그들의 뒤를 잇는 후배들에게도 남겨줘야 한다는 선배의 의무감이 이름답다. 진정한 선후배 관계란 자신이 배웠던 '역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그런데 그런 대물림이 후배들에게는 강요로 느껴져 반항을 하게도 만든다.

요즘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말에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다. 네가 준 만큼 나도 주겠다는 말로 종종 쓰인다. 그러나 이 말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 '네가'가 아닌 '내가'가 돼야 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준 다음에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생각이다. 오늘날 만난 세분이 준 교훈이다. 내가 먼저 선배로서 후배에게 배풀고 내가 후배로서 선배에게 먼저 예의를 갖추는 그들의 모습에서 훈훈한 정을 느꼈다.

늦은 시간 인터뷰가 끝나고 그들은 또 바쁜 걸음을 옮겼다. 오늘 오픈하는 후배의 제과점을 찾기 위해서. (글 김주희) 



“이제는 후배들이 선배들의 기술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앞섭니다.” 박찬희 상무의 말이 인상적이다.